

목회의 프락



정용영 목사
청원교회 담임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시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르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3절-26절)

인생은 수많은 선택과 계산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식으로 사는 것일

한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 세상이 주는 기차 안정감과 화려함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에서 증명됩니다. 손에 흰 것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거절은 포기나 상실이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때내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세상의 인탁할 타협 사람들의 시선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때내는 거절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용기를 더하고 거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계산의 끝에 무엇이 남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

믿음도 공식이 있어요

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왕의 두려움 위에 믿음의 용기를 더했습니다. 성경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려 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기를 믿음 위에 얹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강 앞에서 세상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삶이게 실을 더 크게 보는 용기를 더할 수 있다면 믿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자리에 믿음의 용기를 더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공식에서 용기를 더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잘 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무엇을 채우느냐보다 무엇을 버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모세는 인생의 황금기에서 뽀뿌를 실행합니다. 바로 거절이었습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 권력 바르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거절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와 죄악이 주는 달콤한 낙을 인생에서 때버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합리적이고 미련

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세상의 공식으로는 용기를 내어 고난을 택하고 화려함을 거절하면 마이너스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식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공식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식을 적용해 보십시오.

무서운 현실 앞에서는 도망치지 않는 용기를 더하고 달콤한 유희와 타협의 자리에 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배십시오.

비록 지금은 때내는 아픔이 있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계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정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진짜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용기를 더하고 세상 유희에 거절을 하면 그 자리에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주의 추천음반

아티스트 : 다윗의 노래 편집부 | 기획 : 다윗의 노래 (한국)



마커스워십2017-HOW CAN I GO?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내가 갈수 없을 것 같은 길을 순종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며,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집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가면 됩니

다. 2017년 목요예배에서 우리는 다윗이,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노래했습니다.

마커스워십의 2017년 정규 앨범으로, 12번째 이어온 마커스 목요예배

의 실황을 담은 아홉 번째 라이브 앨범입니다. 이번 앨범은 사무엘상 강해설교가 진행 중인 목요예배의 은혜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2016년 사무엘상 전범부에 이어 올 해는 다윗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닌 골리앗을 이기고 찬란하게 등장한 다윗이, 이후 10여년 동안 걸어진 고난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 11곡의곡과 가사를만들었습니다.

마커스를 대표하는 실종호 인도자와, '주는 완전합니다', '오직 예수 뿐이네'를 만든 소진영 인도자가 함께 예배를 인도하며 은혜를 더하고 있습니다.

(마커스워십2017) 실황앨범은 김남국 목사의 축도까지 고스란히 목요예배를 그대로 옮겨 담아 여러분을 예배의 현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Gospel

6월 '호국의 달'이 되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이달은 단순히 과거를 추모하는 시간을 넘어,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조국의 미래를 위해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감당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찬양은 언제나 성도들의 생생한 신앙고백을 담아낸다

우리 역시 불확실성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 가고 있지만, 과거 집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소명으로 가꾸는 축복의 땅: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새찬송가 580장)

남궁억 선생이 작사한 이 곡은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장 많이 불러온 대표곡인 애국 찬송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으로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이 찬송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맡기신 동산'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일깨워

붙들 것인가 질문하는 이 찬송은 오늘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용기'를 요구합니다.

찬양은 시대를 담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끕니다

현재 섬기고 있는 전주 아이노스 선교교회의 목요 찬양 모임에서도 성도들과 종종 이 찬송들을 부르곤 합니다. 세련된 현대 찬양도 귀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모진 고난 속에서 걸어 올린 오랜 찬송을 고백할 때면 가사 한 줄 한 줄이 서린 묵직한 문장이 영혼 깊숙이 전해져 옵니다.

호국의 달은 과거를 추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하는 시간입니다.

호국의 달에 다시 부르는 믿음의 노래

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 찬송가에는 순전한 믿음뿐만 아니라, 민족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호국의 달을 맞아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세 곡의 찬송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을 전하고자 합니다.

1. 역사 속 새벽을 깨운 소망: '이분 밤 마음에 잠겨' (새찬송가 580장)

복립운동가 김재준 목사가 작사하고 박태준 선생이 곡을 붙인 이 찬송은 일제강점기라는 절박 같은 어둠 속에서도 조국의 해방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노래입니다.

'이분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이름이 있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이 가사는 단순히 광복의 기쁨만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신뢰이자, 확고한 믿이 길지라도 결국 새벽을 허락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다. 특별히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라는 의미는 오늘날 무너진 기초를 세울 교회의 다음 세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선배들의 피땀 어린 기도와 희생 위에 세워진 거룩한 유산이기에, 우리는 빛의 자의 심정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3. 진리 편에 서는 신앙적 용기: '이느 민족 누구게나' (새찬송가 586장)

마지막 찬송은 우리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보편적인 책임으로 시선을 확장합니다.

'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잠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이 곡은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 치열한 신앙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중립이 없기에, 진리와 거짓이 충돌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단호히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6월에는 가정과 교회에서 이 찬송들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은 시대를 담고, 그 거룩한 찬양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복음의 중심,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동명
에이노스 찬양교사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2026학년도 총회신학신 · 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정교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람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총신 신혜란 목사

과정	모집학과	학제	모집인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30명	고졸, 세례받은 자 전문대졸자는 3학년 편입가능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20명	세례받은 자, 평신도, 사명자
신학연구원	신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신학부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동등학력 소지자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학술원	성경심화과정	2년	00명	목회자, 신대원 졸업자
평신도 성경연구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체계화함, 4학기(1년) 평신도 지도자 과정 후 신학 과정에 편입할 수 있음			
특전	신대원 졸업자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에 편입 가능 여유제도 있음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여 목사인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혁 및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6(신안동)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9(금암동)

전남 순천시 중앙3길 4(장천동)